

[전도위원회] 동역교회초청 평가회(23.07.30)

산저교회: 정봉구 목사님 외 교사1인 중등부4인 초등부7,유년부 5 (16명)

행복한 우리교회:오상석목사님외교사5인 고등부2,중등부12,초등부10,유년부5 (어린이 총29명)청년3부 전도지원교회 헬퍼 총8인

교회 및 대상 선정

- 남은 기간 더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미리 알아보아야 할 듯.
 - 앞으로는 세계 교회 정도만.(행복한 우리교회 제외)
 - 우리가 직접 이주가정이 많은 안산(캄보디아, 베트남), 인천(중국) 외에도 강원권으로 가봐야할 듯.
- 중-고등학생은 제외, 유초등부만.(즉 가정 사역이 됨)
 - 보통 이런 동역교회(미자립 교회)의 성도는 10명이내임.
 - 마을 주민은 100명 내외임.(60-80대고 거동이 불편하고, 불교 유교 사상임.)

프로그램

- 새로운 프로그램 + 충현 수련회 일부 참석
 - ex) 12-16시 전도위원회(주로 야외 문화체험) + 16시~충현수련회(금 저녁 부흥회 + 토 성경공부)

전체 브리핑

좋았던 것 :

- 중고등학생이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높았음.
- 유초등부 배려에 감사 인사 전해야함.
- 1일차) 구원의 확신에 관한 목사님 설교 쉬워서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좋았음.
- 1일차) 찬양 페스티벌 반응 좋았음.(달란트에 대한 동기부여)
 - 전도위원회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한 후, 초청하는 형식으로 해보면 어떨지?
 - 금요집회 때 아이들 소개와 담임 목사님과의 사진 촬영 좋았음.

- 2일차) 대학탐방 시간 분배 적당했고, 매끄러웠음. 갈 만한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도 만족스러워했음.
- 2일차) 버스 운영이 매끄러웠음.

아쉬웠던 것 :

- 준비하는 과정에 변동이 많았음.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 못했음(숙소 취침여부 등)
- 헬퍼 오프라인 모임 2-3회 진행 필요.
- 첫째 점심 저녁, 둘째 아침 점심 이렇게 4식 제공 어떨지?
- 1일차) 아이들과의 교감할 시간이 짧았음. 오리엔테이션이 길어야할 듯.
- 1일차) 몸으로 하는 게임으로 해보기.
- 1일차) 꾸준히 초청할 수 있는 숙식 가능 공간이 필요함.
- 1일차) 응급 키트 필요할 듯.
- 2일차) 행복한 우리교회와 같이 늦게 출발하는 쪽에 좋은 엔딩을 준비해야할 듯.
 - 이번에는 에바다부 목사님께서 교회 투어를 해주셨는데, 고정적으로 해도 좋을 듯.
- 앞으로 중고등학생이 오지 않으면 유초등부 지원으로(아이들 케어, 소지품 케어 등)

산저교회 브리핑

- 과학관 소감문 절반 좋았고, 절반 싫었음(과학을 싫어함) > 이 친구들도 결국 돌아가서 좋았다고 함.
- 어머니들의 변화가 있었음. 반대하던 어머니들 현재는 모두 참석하심.(큰 의미)
- 아이들 16명 전체 참석하였음.
- 9교구 2주 후 방문해서 어머니들 만날 예정임.
- 이주가정 - 특히 베트남 / 중국인 가정에 도움이 되었음. 아이들이 자란 후의 역할이 기대됨.
- 환경 탓에 지적 능력 떨어지는 경향 있었는데 현재는 검사 희망하는 친구도 있고, 눈물 흘리는 친구도 있음.
- 지해도 만족스러워하였음.

행복한 우리교회 브리핑

- 이미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현교회에서 하지 않기로.

이번 사례를 통해 자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함.



